

# 'AI 데이터센터' 활성화 광주시-AI 단체 '맞손'

### 서울대 AI연구원 등 6곳과 협약 신규사업 기획·우수기업 발굴 등 AI산업 생태계 확대 공동 노력키로

광주시가 오는 10월 개소를 앞둔 광주 국가 인공 지능(AI)데이터센터를 활용해 초거대 AI 모델 개발·연구에 나설 우수 AI기업을 육성하고, AI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내 주요 AI 관련 단체와 힘을 모으기로 했다.

광주시 산하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이하 AI사업단)은 13일 서울대 AI연구원, AI양재허브와 함께 서울 양재 한국국원단체총연합회관에서 'AI 데이터센터 서비스 지원 확대에 따른 AI 기업 활용 방안 모색을 위한 3시간 업무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한국인공지능협회, 한국SW산업협회, 지능정보산업협회 및 한국지능사물인터넷협회와 각각 업무협약식을 진행했다.

협약식에는 김준하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장을 비롯한 장병택 서울대 AI연구원장, 함종민 AI양재 허브 센터장, 김동철 한국SW산업협회 부회장, 김의철 한국인공지능협회 부회장, 손준중 한국지능사물인터넷협회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광주시,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이 추진하는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 사업 중 하나인 'AI데이터센터 서비스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AI데이터센터 인프라를 활용한 AI

업의 서비스 개발·연구를 촉진하고 AI산업 생태계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

주요 협약 내용은 AI 관련 신규사업 기획 및 과제 발굴 협력, 과제 공동 수행, 잠재력 우수한 AI기업 발굴, 사업·행사에 대한 공동 홍보 등이다.

AI사업단은 업무협약식 이후 AI 관련 기업 50여 개가 참여한 가운데 'AI 데이터센터 서비스 이용자 모집을 위한 사전설명회'도 개최했다.

설명회에서는 AI데이터센터에서 제공하는 초고성능 컴퓨팅 자원인 엔비디아의 'H100' 기반 최신 성능 가속기와 NHN 클라우드를 통해 제공될 클라우드 서비스 등 10월 개소 예정인 AI 데이터센터 서비스 관련 전반적인 내용이 소개됐다.

AI사업단은 특히 AI데이터센터 개소 이후 올 하반기부터는 엔비디아의 최신 성능 가속기 등 AI모델을 개발·연구할 수 있는 컴퓨팅 자원의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내년 상반기부터는 AI데이터센터에서 HPC(초고성능 컴퓨팅 자원) 20페타플롭스(PF), 저장 용량 107페타바이트(PB) 규모의 제공되는 컴퓨팅 자원 전체가 가동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준하 AI사업단장은 "대한민국 AI 혁신 거점 대표도시인 광주는 AI 데이터센터 본격 가동과 함께 명실상부한 AI 데이터 허브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앞으로 AI데이터센터를 기반으로 성장 가능성이 큰 기업들이 AI 제품 및 서비스 개발에 집중하고, AI산업 생태계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강기정 광주시장이 13일 오후 서구 관광기업지원센터를 방문해 입주업체 대표, 관광 관련 전문가들과 관광기업 발굴 육성 및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 강 시장, 도시계획 조례 의결 다시 유감 표명

### 광주시 확대간부회의... "시의회, 충분한 숙의 통해 제·개정해야"

강기정 광주시장이 수정 요청에도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의결한 시의회에 또 한번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강 시장은 13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조례안은 시의회와 집행부 간 충분한 숙의 과정을 통해 제·개정해야 한다"며 "논의를 통해 이견을 줄이고, 숙성시키고,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조례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9대 광주시의회 출범 이후 현재까지 조례안 331건이 발의돼 그중 321건이 발의된 회기에 처리됐다"며 "계류 7건, 보류 후 대안으로 통과돼 폐기된 2건, 미상정 1건만이 회기 내 처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제출된 의안을 회기 안에 꼭 처리해야 한다는 관행에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지난 11일 기자들과 차담회에 이어 시의 수정, 보완 요청에도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의결 처리

한 시의회에 유감을 다시 표명한 것이다.

강 시장은 "집행부에서는 발의된 조례안에 대해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 상위법과의 관계, 자치법규 간 통일성, 재정 투입 규모 등을 면밀히 따져야 한다"며 "시의회와 충분한 시간을 갖고 협의하고, 합리적 대안을 만드는 과정을 시간이 걸리더라도 거쳤으면 한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지난 6일 열린 본회의에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회의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함께 담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전남도, 호주서 64만4000달러 수출 성과

### 10개 기업 파견 상담회... 김·화장품 등 한국 제품 호감도 높아

전남도가 전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과 함께 지난 6일까지 4일간 호주 시드니에서 수출 유망기업 10개 사를 파견, 수출상담회를 열어 64만 4000달러의 수출 성과를 달성했다.

이번 상담회에는 김, 쌀, 과자, 유자차 등 농수산 식품 5개 사와 화장품, 유기질 비료 등 공산품 5개사가 참가해 총 25개 호주 현지 바이어사와 상담을 진행했다. 상담회에서는 총 6건의 계약이 체결돼 4만 4000달러의 수출 현장계약을 했으며, 60만 달러의 수출 업무협약도 했다.

현장 계약은 (주)아라움이 크리스피 스낵류 3만 달러, 올바름이 쌀과자 등 5천 달러, 맑고맑고따뜻한협동조합이 유자차 등 7000달러, (주)지니스인 테네시네일 클렌징밤 1000달러, (주)인코돈바이

오코스메틱이 미백과 주름개선 및 피부 진정 화장품 1000달러 등이다. 신축이음관 기계를 제조하는 (주)디엠티가 10만 달러, 비온은 계면활성제를 생산하는 (주)에스에프시가 50만 달러 등 수출 업무협약도 이뤄졌다.

그 외에도 (주)해정정은 다시마면과 미역면, ㈜가보팜스는 유자차 등, (주)봉강친환경영농조합 법인이 유기질 비료를 출품해 호주 시장 진출 가능성이 높았다.

호주 시장에서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 소비자들이 한국 제품을 찾는 경우가 많아지는 가운데 이번 상담회는 신제품 계약을 성사시키는 등 전남기업의 해외 수출 시장 확대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윤현석 기자 chadol@

## 전남문화재단 대표에 김은영 전 광주비엔날레 실장

(재)전남도문화재단 대표이사로서 김은영 전 광주비엔날레 정책연구실장이 선임됐다. 임기는 2년으로 1년씩 두 차례까지 연임이 가능하다.

신임 김은영 대표이사는 재단의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경영능력, 전문성, 조직 친화력, 리더십 등을 검증받았다.

예술행정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 활성화를 이루는데 적합한 인사라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광주비엔날레 정책연구실장 재임시 비엔날레 발전방안을 수립하고 국내외 비엔날레와 미술관 등의 자료 수집, 국내외 전시기획·현대미술관

련 DB구축 등의 업무 수행 능력을 인정받았다.

김 대표이사는 전남대 불어불문학과를 졸업하고, 전남대 예술대 석사를 거쳐 조선대대학원에서 미학미술사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광주일보(문화부) 기자를 거쳐 광주비엔날레 정책연구실장, 광주시립미술관 학예연구관, 전남대 세계한상문화연구원 전임연구원 등으로 활동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



### 지방정가 라운지

## "스마트 에듀팜 교육 장비 방치돼 강통 전략"

### 김호진 도의원 임시회 도정질문

학생들에게 코딩 등 정보기술을 활용해 농작물을 비롯한 식물 성장 과정을 관찰토록 하는 스마트팜 교육 사업이 특정 업체를 위한 특혜성 정책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호진(민주·나주 1) 전남도의회는 13일 열린 제 374회 전남도의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간 일선 학교에 '스마트 에듀팜'이라는 교육용 장비 219대(4억 8000여만원)가 납품됐지만 제대로 활용할 수 없는 공간에 방치되거나 고장나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방학기간 관리도 어렵고 시스템 오류도 잦은데, 성장 속도가 느려 학생을 관심을 유도하기 어렵다는 현장 목소리를 외면한 채 추진하다보니 대당 200만원이 넘는 교육 장비가 강통 기자재로 전락했다"면서 "이런데도 올해 영재교육원에서 수십여대를 사들여 추진키로 했다"고 비판했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관련 교육 장비 납품상 문제와 활용·성과보고서 작성 여부 등을 관련 절차에 따라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전라남도대표축제**

# 제23회 영광 불갑사 상사화 축제

상사화 꽃길 속으로,  
천년의 사랑 속으로

상사화 소원의 길

상사화 꽃길걷기

평전국악버스킹

상사화 미디어파사드

상사화 달빛야(夜)행

**초대가수**

김인자

황민우, 황민호

9월 15일 오후 6:30

■ 축제 입장료(8:00~18:00 입장객에 한함)

구분	요금	환급액 (영광사랑상품권)
일반	3,000	3,000
5세 미만(주민등록등본 제시), 영광군민(신분증 제시) 장애인·국가유공자(해당 증 제시) 임산부(임신확인서 제시), 축제 관계자·초청인사	무료	-

\* 환급된 영광사랑상품권은 축제장과 영광 전 지역에서 화폐처럼 사용 가능 (연매출이 30억원 이상인 일부 가맹점 제외)

## 2023. 9. 15.(금) ~ 9. 24.(일)

### 영광 불갑사 관광지 일원

영광군청 · 영광군의회 · 영광군교육지원청 교육장 고 광 진 · 한수원(주)하빛원자력본부 본부장 최 현 규

주최/주관 : 영광불갑사상사화축제추진위원회 / 집행위원회 후원 : 영광군의회